

ΕΦΘΝῆ ΙΜΘΡΟῆ 박사Æ 시편Æ 강의 ĆĆ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12회기, 탄원시, 애도, 원수, 주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접근 방식과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우고 있으며 비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는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 감사의 찬양, 간구의 시편이 있습니다. Gunkel이 논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Mowinckel이 선택한 이전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편집자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시편에 던진 지침 시편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첫 번째 시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훈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네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고, 특정 행위에 대한 감사찬양이 있고, 청원시가 있고, 교훈시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시편 지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적인 유형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또한 방금 감사의 찬양의 시편인 시편 92편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귀하의 메모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강의 계획서의 큰 부분입니다. 정말 7리그 부츠를 신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일은 Gunkel이 매우 상세한 독일 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많이 훑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시편에 대해 아주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폭넓은 시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찬송가가 시편 안에 있는 그 장르의 좋은 맛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간구는 시편 내에서 지배적인 소리이다. 제가 하는 일은 Gunkel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시편을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Gunkel의 세부 작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것을 훑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시편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부로, 소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본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162쪽에 있는 제2부에서 나는 탄원 시편의 주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뺨을 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치시며 그들의 아기를 데려가 바위에 치시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서 물러납니다. 그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162페이지 2부, 암시적 시편에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독특한 부분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이 장의 끝에 시편의 신학에 관한 세 번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원시편의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부분에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트에는 없지만, 청원 시편에서 얻을 수 있는 신학에 관한 몇 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몇 가지 소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장르를 어떻게 지칭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실제로 숫자 2의 개별 애도 노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군켈을 사용한 후 그를 꽃을 가져다가 모두 찢어버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식물학자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수술과 잎, 뿌리 등을 이해하고 나면 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찢고 있을 뿐이고 더 이상 꽃의 향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이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그 향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40쪽의 개인 애도에 이어 가보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애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는 혼합이 있습니다.

Gunkel은 그것을 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해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 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와 국민은 서로 기업적 연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혼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동체의 애도에 불과한 것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의 청원서의 주요 모티브는 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141페이지에서 적을 언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상단에 로마 숫자 4가 보입니다. 그래서 명명법이 있고 로마 숫자 2, 개인의 애도, 공동체의 애도가 있는 후에는 적에 대한 전체 섹션을 갖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숫자 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서는 청원 시편의 모티브를 논합니다. 마치 찬양시에도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과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칭찬을 새롭게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모티브입니다. 청원 시편도 이 부분에 대한 식물학적 분석에서 뚜렷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주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도가 있고 , 간구가 있으며, 그 끝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원 시편의 모티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적인 애도 시편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먼저 개별 애도 시편을 살펴보고 그 다음 공동 애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적에 대해 성찰하고 그 다음에는 모티프에 대해 성찰할 것입니다. . 이것이 광범위한 견해이고 우리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우리는 머리를 물 위에 두고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편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창은, 개별 탄식 아래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논의할 내용은 우선 매우 빠르게 시편의 식별, 대문자 A, 식별이 시편의 식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질문은 Gunkel이 다루는 개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나라고 부르는 전체 공동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B에는 개인의 신원 정보가 있습니다 . 그런 다음 31페이지에서는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131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법과 동일시를 얻은 후, 또는 시편의 동일시, 곧 나의 동일시를 얻은 후에, 우리는 그 시편이 출현하는 다양한 생활 환경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은 8가지 다른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애도의 개요입니다. 공동 애도가 포함된 140페이지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4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약 50편 정도 되는데, 이는 시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 47명이 적을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 세 편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4편인데 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위기는 가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큰 숫자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도나 청원을 씁니다. 아, 우선 명명법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불평 또는 애도, 간구, 찬양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프 중 하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도는 상황을 실제로 애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죄를 애도하는 것, 참회하는 시편과 당신이 항의하는 불평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탄을 넘어 불평이다. 그래서 애도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불평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끊임없는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티프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용어를 갖게 됩니다.

글쎄, 내 생각에 문헌은 애도나 불평, 청원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 청원 시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시와 간구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숫자 2, 개인의 탄식, 그리고 그 아래의 A는 식별을 의미하며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의 지배적인 종류입니다. 시편의 가장 큰 장르입니다.

150점 만점에 50점 정도입니다. 지난 한 시간 동안 RWL Mobley의 말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인용하자면, 이스라엘 기도의 중심에 애가가 우세하다는 것은 애도를 일으키는 문제가 주변적이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앙 생활에서 겪는 고뇌와 당혹감이 신앙의 결함, 즉 극복하거나 뒤로 미루어야 할 어떤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논의한 개념, 즉 미덕과 그에 따른 보상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개념을 논의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에 즉시 상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을 숭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대신 그분은 우리의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적대적인 적이라는 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Agor가 말했듯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소유가 너무 많으면 주님은 누구시냐고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통해 우리는 예배와 도덕을 즐거움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상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이 자만하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낮추시려고, 당신을 시험하시려고, 당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당신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낮추시어 당신을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시고, 그 결핍이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번영이 그들의 삶에 불리한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먹고 배부른 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네가 형통할 때에 너는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등급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타락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하며 너희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 은금이 늘어나고 너희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뜻을 잊어버리리라 너희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분은 독사와 전갈이 들끓는 물 없는 목마른 땅,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위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나에게 이 부를 안겨 주었다고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로써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하고, 자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30페이지에 미덕과 그에 따른 보상 사이의 격차가 영적인 삶에 필수적이라고 썼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청원자는 쾌락과 도덕을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덕과 그 보상에 한계를 두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며 영적인 삶이 발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욱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편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시편에서 그들은 찬양으로 승리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칭찬 없이는 결코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맥락에 있습니다. 이것이 욕과의 차이점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를 노엽게 여기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욕은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 자리에 놓았던 교만함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불평도 규범이고 심지어 항의도 규범이지만,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A입니다. B, I의 식별, 여기서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Gunkel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자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개인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개인의 시를 완전히 오해하고, 불평가요의 '나'를 공동체와 보편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일부 연구 일반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고 썼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은 개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는 당시 학계에 연설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131페이지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첨자에는 멸시를 당하고 근심 걱정을 토로하는 102인의 불평 노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자 D는 종종 나머지 커뮤니티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내 친구를 나에게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는 시편 18편 등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입니다. 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태어난 삶의 환경과 그들이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시편 중 일부는 성전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그 내용은 132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편은 성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록되고 작곡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을 위해 즉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성전에서 쓰려고 왔지만 성전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적들도 성소에서 제거됩니다. 따라서 132페이지에 있는 성전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성전이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부 시편의 경우, 성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부른 세 번째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적들은 가까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넷째, 성역에서 제거된 적들의 묘사입니다.

일부 시편은 병상에서 지었습니다(시편 134편, 134페이지). 또한 135페이지의 6번에서는 대개 상황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7번은 때때로 죄 때문에 작곡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죄를 인식하고 있으며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8번, 138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내부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는 적, 즉 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함께 갈 수도 있고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8개의 다른 점이고, 9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점은, 음,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상황을 식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모든 종류의 적용에 공개하는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위입니다. 그럼 13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9가지 사항과 8가지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군켈이 하는 첫 번째 지적은, 일반적인 표현과 은유 때문에 설정이 무엇인지 늘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괄호 안에 넣을 때는 모든 학자들이 기본 데이터로 인정하는 Gunkel의 이 거대한 작품을 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다윗의 손에 의한 고난에 쉽게 들어맞을 수 있으며,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의 손에 세 번의 주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편은 사울의 적과 압살롬의 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약
, 에돔 사람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의 여러 구절로 시작하여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설정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5편은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분명히 왕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정입니다. 다시 그는 시편 28편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드는즉 아침 새벽 제사를 드리게 되리이다. 또 시편 5편에서와 같이 아침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나이다.

아침에 나는 당신 앞에 나의 요청을 놓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상황을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고대에는 아침이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아래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이 아침에 법정을 열던 때였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인 샤마쉬(shamash)에서는 태양이 심판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낮의 빛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고, 고려하고, 판단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편 141편과 같이 저녁에도 드려졌습니다. 나의 기도가 향처럼 당신 앞에 놓이게 하소서.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 특정한 경우에 저녁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편에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가오리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위하여 자갯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과 위기 속에서 그는 대답 없이 잠에 들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4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32페이지에 있는 일부 시편 3편은 성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적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 끝에 두 번 이어지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42편은 애도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43편은 탄원하는 부분입니다.

청원서는 별도의 기도를 위해 뽑혔는데 정말 한 편의 시편입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다. 그래서 사슴이 물줄기를 갈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온종일 나에게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동안 내 눈물이 밤낮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축제의 군중 속에서 기쁨과 찬양을 부르며 전능하신 분의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쩌하여 내 영혼이 낙심하느냐?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에서, 메지아 산에서부터 하만의 높은 곳에서 너를 기억하리라. 즉,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포로로 잡혀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기 요단강에는 폭포가 있고 주의 폭포 소리 속에 깊은 울음소리가 있고 주의 모든 파도와 파도가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주님께서 밤에 그분의 사랑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노니 어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쩌하여 원수에게 애통하며 압박을 받으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왜 낙심 하고 있습니까 ?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시편 4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3, 청원은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입증하고 불성실한 나라에 대하여 나의 송사를 변호하라.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거절했나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에게 압박을 받으며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당신의 빛과 충실한 보살핌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끌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왜 낙심 하고 있습니까 ?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는 성전에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기를 갈망하지만,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유배의 형식으로 이 시편을 부릅니다. 글썄, 그것은 여기에 나열된 다른 시편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한 시편이 있고 당연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개발되지 않은 4번에서는 적의 묘사가 성역에서 제거됩니다. 여기서 Gunkel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가 여기서 한 일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성역에서 제거된 적의 묘사인 데이터입니다.

상대방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각주 158.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주 159. 그들은 그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161.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 장소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야훼의 도움 등에서 분리되는 외부 생활 상황으로 인도됩니다.

즉, Gunkel은 이 모든 데이터를 추적했고 그것은 여러분의 각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읽으면서 당신은 시편에 대한 꽤 폭넓은 견해와 그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설정, 삶과 죽음의 상황입니다.

Gunkel은 이러한 기도가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끔찍한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수와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도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 번째입니다. 7번 설정, 136쪽. 그들은 때때로 참회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참회자는 병에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시편 38편 전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을 내어 시편 전체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노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회 시편은 질병뿐 아니라 인생의 짧음에도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편 중 하나가 인생의 짧음을 다루는 시편 90편입니다. 여덟째, 온갖 종류의 내적인 괴로움과 욕구, 즉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139페이지에는 온갖 종류의 무거운 생각이 전개됩니다. 140페이지에는 그분과 관련된 그의 백성의 고난과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편에서 그가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140페이지의 또 다른 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지 느낌을 조사하는 것뿐입니다. 시편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것이 실제로 시편의 낱말과 씨실임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페이지에는 공동체 애도가 있고 페이지 하단에 관련된 공동체 애도가 있습니다.

이제 141페이지로 가서 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을 언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 B의 대부분은 도덕적 용어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럼 적에 대한 설명인 c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Mowinckel과 Gunkel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놀랍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David와 역사적 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Mowinckel이 하는 일, Gunkel이 하는 일.

그가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나는 첫날 해석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이해는 그를 시편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Mowinckel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누구나 낭켈과 모윈켈을 낭송해야 합니다.

Mowinckel은 노르웨이 학자이며 Gunkel의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A에서는 적을 가리키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적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각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도자가 아닙니다. 적에 대한 다양한 단어와 Gunkel이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한 모든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141페이지의 B는 적에 대한 도덕적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적을 군사적 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 야. 그래서 당신은 변덕스럽고 기만적인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응. 그것을 다양한 명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넣었지만 모두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악당입니다. 그들은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은 거만해요. 그들은 거만해요. 그들은 강포한 자요, 굶은 자요, 강한 자요, 거짓 증인이요, 악한 자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요, 궤사하고 교활한 자니라.

그는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용어로 분류합니다. 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구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전체 우주 안에 있는 무대입니다. 비록 허블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계 끝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단지 작은 무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는 정의와 불의, 진실과 오류, 미덕과 악덕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투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우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대이고 그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미덕 대 자신감, 이기심, 절망의 길에서 우리를 행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만 우리는 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구약성서에서는 그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악한 사람들, 원수 뒤에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c. 그는 원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그들이 군사적 적이라는 묘사를 묘사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냥꾼으로 이미지화되었으며, 의인인 그는 사냥당하는 동물과 같습니다. 셋째, 그는 적에게 동물, 동물 형상의 동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자, 황소, 개입니다.

넷째, 그들의 비뚤어진 길, 그들의 은밀한 의견, 그들의 멸시하는 말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 의견, 말. 그것은 4번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 그들은 공격하는 부대입니다. 그는 화살을 쏘는 동안 적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은 무너진 벽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에 따라 적의 손에 있는 칼이나 그들의 활과 화살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저는 왕이 문자 그대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왕국은 육신적인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육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국은 더욱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9-10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에 대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는 사냥되는 동물입니다. 반대자들은 마치 동물의 길에 놓는 것과 같은 비밀 그물을 경건한 사람들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76편 전체가 보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길에 무덤을 파냅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함정.

177번, 사냥에서 야생동물을 쫓는 것처럼 그를 쫓는다. 그리고 178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궁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미사 자료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나에게 새로운 것인데, 그런데 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코스를 준비하기 위해 두 달 전에 Gunkel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일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주석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편 몇 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성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확대/축소형 이미지, 동물 이미지 및 기타 구절은 야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적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시편 기자가 야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아, 그들은 견뎌야 하고, 그건 베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찢고 그의 살을 먹고 싶어 합니다. 먹이를 위협하는 사자이기도 하고, 분노한 황소나 무는 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린 것을 꺾으시고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시편 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굽은 길과 은밀한 의견이 있습니다. 궁궐은 우리를 위해 모든 시편을 다시 요약했는데, 여기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읽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데이터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놓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깊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표면을 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시편과 이 모든 구절에 올 때, 그것은 더 넓은 차원에서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행운입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다섯 번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144페이지에서 적은 누구입니까? 여기 모원켈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 92편에서 본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해석하십니다.

그는 그 표현을 주문을 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의 말로 주문을 걸고 그것이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술사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문을 시전하여 적을 멸망시키고, 시편 기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술사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여기 군켈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가 원초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이고 다소 신경증적이며 아마도 편집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의 말을 인용했어야 했다.

바로 건켈입니다. 원래 그들은 왕족이었으나 나중에 은유적으로 일반 시민을 가리키는 말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성전에서 그것이 구두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군사 이미지는 두 번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아프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심리적으로 아프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진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유형과 관련하여 이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은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입니다.

이러한 발화에 활용된 모델은 개인의 애창을 모방한 왕의 애창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그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견해로는 일반 시민이 아프다. 그 과정에서 개별 항의곡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미지와 상징이 된다.

그는 145페이지에서 시편 191편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악마의 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세요,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도, Y와 E, 기도,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하이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때로는 병리학적으로나 성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균켈이 원시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언, 적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적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받는 사람의 열정적인 과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불평, 극심한 질병, 무서운 죽음의 위협의 근원적 원인에서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진다.

전체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즉 그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들이 균켈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고 상상합니다. 그는 적을 상상합니다. 즉, 그는 편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Waltke 박사님,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에 대해 알고 있는 역사를 고려했을 때 왜 그가 그런 해석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일어난 고통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이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거기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주석에서 왜 그곳으로 가는지 우리에게 말하니까? 아니요,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다윗이 강의할 만큼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왕실의 맥락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이것을 논의했고, 이 자료가 두 번째 사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전체적인 전제 기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것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원래는 전쟁중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벨하우젠 시대의 더 높은 비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전체 배경인데, 왕이 없을 때 이곳이 제2의 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프면 그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정신병적이거나 신경증적이거나 편집증적이라면 왜 이 모든 세부 사항을 허비하겠습니까? 왜 이 모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정신적 안녕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상상합니다. 따라서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이 모든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건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부자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급 전쟁으로 끝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기 문헌에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사악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부자와 싸우는 경건한 시편 기자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급 전쟁으로 끝난다. 내 말은, 이것은 시편을 너무 개자식화한 것입니다.

나는 거의 참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장학금이다. 그러니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가 옳습니다.

참회의 시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죄의식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가 말하는 갈등은 계급투쟁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에 반대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대조는 부자가 사악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첫날 말했던 모나리자와 비슷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명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전 이해입니다. 그래서 나의 첫 강의는 해석학과 영적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편 해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논의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티프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고 이러한 적들을 고려하는 넓은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청원 시편을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는 도덕적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겨난 다양한 삶의 환경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런 다음 삶의 환경의 일부로서 이 적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일부로 주변에 적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편의 모티브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섯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주소가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애도가 있습니다.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148페이지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페이지까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 모티브인 자신감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페이지는 156이어야 합니다. 네, 156페이지에 있어요.

우리는 7리그 부츠를 신고 멜라니에게 강의 계획서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의 결론에 대해 160페이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주소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 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Kunkel이 여기서 사용한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문하고 싶지만 그의 소개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주소, 애도, 신뢰, 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애통과 간구 사이에 확신이 있어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결론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하느님께 드리는 주소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몇 가지 기본 정보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묵상인 146페이지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7페이지, 우리에게서 탄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유일한 점은 네 번째 점입니다. 그 불평에는 가치 있는 세 가지 공통 하위 모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시편 122편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여러분은 “내가 네 눈앞에서 쫓겨났으니”라고 읽을 것입니다.

각주 123번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구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시느냐? 시편 10.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122.1.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자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보기에는 세인트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조사해 보면 열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중 볼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층을 보면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영적 경험이 아닙니다. 시편이 솔직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표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의 자세로 되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이론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적이 너무 강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 매체를 보고 내 세상을 보면 적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로잡힐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를 대적하는 영보다 더 큼니다. 결국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셋째,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기 로맨스 부분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그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의 주요 부분입니다. 148에서 156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대개 단순히 듣기 위해 하나님께 일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아오며 기도는 심판과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건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건을 자기 앞에 제시하여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꽤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우시거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항목은 관찰 가능한 특정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5번 항목에 따르면 그는

판사 앞에서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는 자신의 청원을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가지 고유한 특정 상황 또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백 청원과 항의 청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덟 번째로 그는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건 건너될 수 있어요. 아홉째, 적에 대한 청원과 소원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시편의 전체 별도 섹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의 10번에서 그는 마법에 대한 멜랑콜의 견해가 틀렸음을 폭로합니다.

11번,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오 주님과 같은 비난적인 질문을 합니다. 12번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근거입니다. 148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건과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이 자고 계시다고 느끼고 깨어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아주 아주 드라마틱해요. 주요 부분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달하다,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단어가 번역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 야슈아(Yahshua)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슈아, 호시아, 여기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어쩌면 당신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 말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것이 여기 메모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야슈아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군사적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두 번째 생각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법적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 이 노트에 있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Sawyer의 주장을 따라 사례를 논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149페이지에는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대의를 이행할 책임은 바로 왕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고통 받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강간의 경우처럼 소리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그녀는 부분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응답하여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을 시편 기자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분이 공의의 길을 수호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놔두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걸지도 모르지만, 강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여자가 해산을 외쳤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법 전체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논의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당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놔두자.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논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은 고백 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의 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로 나를 잡아가지 마소서.

나에게 영원히 화내지 마십시오. 내 악한 행위를 보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속죄임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탕자는 갈 집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탕했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갈 집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시편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항의하는 다른 시편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기 당신은 그들의 말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검사하십시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내 신장과 내 심장입니다. 신장은 감정의 중심지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성한 재판관에게 나를 옹호하라고 촉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의 결백함을 인정하고 그가 죄인의 운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가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신을 갖기 위해 모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용서받았는지 아니면 결백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백하다면 기도하면 된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결백하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이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하며 '나의 숨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되 내 숨은 죄가 사함 받은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안다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결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상황에서.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회심과 죄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로 놔두겠습니다. 이제 청원 코너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 섹션인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1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158페이지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풍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확신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 이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159페이지 세 번째,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내 생각엔 노트에 있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일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영광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신이 없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I Am과 함께 있을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죄의 근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건 건너뛰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에 관해 내가 말하고 싶은 유일한 요점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애도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청원서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살펴봤고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종종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I Am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I Am의 은혜를 영원히 신뢰합니다. 여호와여,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정직한 마음의 도움으로 주님께서서는 의인을 심판하시고 날마다 저주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들은 결국 그들 중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 다수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편 4편, 그는 결국 확신에 차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나의 경우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한 것처럼 제사장의 신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명입니다. 나는 그것이 텍스트에 표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명을 위해 Hannah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이 신앙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신앙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군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기도 자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종종

아주 갑자기 완성됩니다.

불확실성과 유보감은 보호에 대한 행복한 인식과 보호하는 더 높은 힘의 손에 숨겨짐으로써 해소됩니다. 건겟입니다. 의심과 질문을 통해 확실성이 깨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불안과 소심함에서 미래를 기뻐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욕망과 소망은 내부 자산이자 소유물이 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루터는 멜란히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칼빈은 불안과 두려움, 동요 속에서도 기도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빛을 찾을 때까지 억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믿음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확신으로 끝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가 가진 문제야. 그러나 시편 전체가 들려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이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이다.

남자라서 좋은 점이네요. 그러므로 법정에서와 같이 듣지 말고, 법정에서와 같이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결에서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12회기, 탄원시, 애도, 원수, 주제입니다.